

지역 매 아리

부안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지난 28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부안군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17일간의 제28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7개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51건의 운영 질문 답변을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운영 중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하며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한수 의장은 "운영 질문을 통해 나온 정책 대안이 앞으로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주문하고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예정된 사업을 연내 마무리 할 것과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임시회를 마쳤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서 청문회, 역사사지의 청문 활동으로 내부 고객 '호응'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전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의 입장에서 개인별 고충사항이나 말 못 할 고민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일명 작은 소리에서부터 귀 기울이는 청문 활동으로 진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보다 유익하고 보람된 직장생활이 유지되기 위한 일환으로 사소한 일에서부터 역사사지의 심정으로 직원들의 애환을 충분히 들어주고 함께 나누며 최선의 해결방안도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공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나눔을 선제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무장파출소 김정수 경위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부터 쉽사리 꺼낼 수 없는 이야기를 가족의 마음이 되어 장시간 들어주고 같이 하려는 청문 기능의 노력에 감사하고 이런 문화가 계속 된다면 좋은 직장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청문감사관 송태석은 "사소함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동료와 마음 나눔을 통해 깊은 관심과 배울 수 있는 바람직한 자세가 습관화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언제든지 우린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재 고창서장 역시 "조직 내부 직원들 간 열린 마음으로 풀이될 않는 소통문화가 지속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꽃피우는 오상고절의 정취'

내달 11일까지 고창국화축제... 자연생태 · 역사문화가 함께하는 국화향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에서 고창국화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 운곡 탐사트 습지를 연계해 아름다운 자연생태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국화축제'가 화려하게 개막했다.

지난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고창 고인돌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고창국화축제'는 고창의 자연과 역사, 문화, 명품 농특산물을 연계한 오감만족 축제로 마련됐다.

축제 첫날인 28일에는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장, 군의원,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 군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난타팀과 가수 안치환의 공연으로 흥을 띄우며 시작된 개막식과 함께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선포식이 열렸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선포식은 동양최대의 300톤급 고인돌이 대변하듯 한반도 내 거대세력 형성과 고창 내 각종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로 증명되고 있다. 한·중, 한·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국제도시로서, 한반도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고창의 영광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장의 의지로 표명한 것이다. 선포식에서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삼한시대 고창 지역역 있던 모로바리국의 고인돌 상석 끝기 재현 퍼포먼스가 선보였으며, 서예가 하관수 선생이 글씨를 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깃발이 고창의 상징인 고인돌공원 내 고창마루에 게양됐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국화축제'가 내달 11일까지 고창고인돌공원에서 열린다.

국화축제에서 방문객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고인돌공에서 죽림선 사마을까지 펼쳐진 900m의 화단국화 산책로와 22,000㎡의 오색국화밭과 식용국화밭의 국화는 현재 약 60% 정도의 개화 상태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창 국화동호회 회원들이 준비한 국화 석부작, 목부작 등 작품과 더불어 식용국화를 이용한 국화체험장, 식용국화따기체험 등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돼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황도배추로 유명한 고창의 김장배추를 특화시키기 위해 '김장체험 및 김장거리 판매'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김장체험에서는 절임배추를 양념에 직접 담가 수육과 함께 시식도 해 볼 수 있으며 절임배추와 각종 김장양

념도 저렴하게 사갈 수 있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국화밭에서 주말과 주중 이후에 펼쳐지는 각종 공연도 고창국화에서만 즐길 수 색다른 경험으로 호응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전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훌륭한 고창고인돌유적은 선사시대부터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증명하고 있다"며 "진한 국화를 맡으며 생명의 기운 가득한 원시자연생태를 잘 느낄 수 있는 이번 국화 축제에서 고창의 농특산물도 직접 맛보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도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확보 총력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가져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28일 시청 국·소장과 각 실·과·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유 시장은 이날 보고회를 주재하고 보고자신 실과소장으로부터 국가예산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진상황·계획, 애로사항 등의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

이날 보고회에 보고된 정읍시 2020·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총 70건, 총 사업비는 5천446억원이며, 이 중 2020년 신규 국비예산사업은 20건, 총 사업비는 1,085억원, 문화체육관광부 9건에 총사업비 1,361억원, 국토교통부 8건

에 총사업비 1,039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은 ▲축산CTC 융복합 냄새 저감 스마트팜 조성(총 사업비 200억) ▲에너지안전 종합분석 연구센터 구축(총 사업비 205억)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총 사업비 124억) ▲자생식물 전시관 조성사업(총 사업비 200억) ▲LH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총 사업비 600억) 등이다.

시는 "중앙부처 예산편성 방향과 정부 역점추진사업 등을 연구 분석한 끝에 이와 같은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발굴된 사업들은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전복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치밀한 논리를 개발, 2018년 12월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국가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농업기술센터, '세계절 푸른 정원 원예체험활동' 운영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 달간 정읍 시내 4·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계절 푸른 정원 원예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총 30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체험활동에는 500명의 어린이들이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험활동은 어린이들이 세계절 푸른 정원의 식물들을 이용한 다양한 원예 활동을 통해 심리적·사회적·육체적 안정을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한다.

세계절 푸른 정원 원예체험활동은

세계절 푸른 정원 구별별 관람, 농업기술센터 내 아열대작물(감귤류)과 구절초, 특용작물 전시포 견학, 나만의 화분 만들기 등 어린이들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세계절 푸른 정원은 2016년 향기원, 관엽식물원, 색채원, 유실수원, 산수정원, 허브원, 세담류, 계절초원으로 700㎡ 조성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볼거리와 쉼터로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첫 발'

정읍시-LH, 업무 협약식 가져

정읍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정읍시청에서 유진섭 시장과 임정수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읍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한형)과 관련하여 노후주택 등 관련 내용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정읍시와 LH의 역할 분담과 사업비 및 사용허가 기간, 향후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사업기간, 사업비 부담금 및 정산방법, 건축물의 소유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시행 협

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유진섭 시장은 "노후된 수성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한형)의 앵커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등의 유입으로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마중물적 사업이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긴밀히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금년 8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공기업 제한방식으로 선정되어 노후청사에 대한 복합개발과 정읍역세권 주변 정비 사업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150억원, 도비 25억원, LH 17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422억원을 확보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가자 부안으로! 가자 지비로! 복나와라 똑딱

동진면 지비마을, 내달 10일 축제... 공동우물제 · 사과따기체험 등 다채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지비 마을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다가오는 11월 10일 500여명의 주민과 향우,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복을 받는 '제2회 가자 지비로! 복나와라 똑딱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공동우물제, 전통철술·팔순 잔치, 시골스럽고 소박한 지비마을 특산물 음식체험, 사과따기체험, 풍타작체험, 떡메치기체험 등 독특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과 향

우, 귀농인이 함께 어우러지고 관광객들이 가을여행의 색다른 추억을 담아 갈 수 있게 준비했다.

또한 체험중에서 사과따기 체험은 탐스럽게 빨갛게 익은 사과를 가족 연인들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흠뻑 느낄 수 있어 인기이며 호응도가 높으며 현장에서 즉석 접수한다.

동진면 지비마을은 60여가구 120여명이 수도작을 위주로 과수, 벼, 약용작물 등 다양한 소

득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최근에는 젊은 귀농인들 10여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전라북도 귀농·귀촌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등 활력이 넘치는 마을이다.

서갑석 위원장은 "지비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전통행사와 특산물 음식체험, 농·특산물인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므로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정감어린 추억을 틔워 달아주시길"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